

노래하는 경안천

최 병 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닥을 흰히 드러내 놓고 바삭바삭 말라가던 하천이었다. 경안천은 한여름 띄약별에 시름시름 앓고 있었지만 좀처럼 비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하늘에는 목화솜 같은 하얀 뭉게구름이 뭉실뭉실 떠 있을 뿐, 비가 내릴 조짐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랬다. 비에 대한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고, 이따금씩 마른바람만 하천 바닥에 행하니 불어오는 것이 전부였다. 그나마 군데군데 파인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어 다행이었다. 크던 작던 간에 물웅덩이가 있어 목마른 경안천은 겨우겨우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중에 예기치 않게 폭우가 쏟아져 내렸다. 하루, 이틀, 사흘. 연이어 굶은 날씨가 계속되자 이제 별을 보는 일이 힘들어질 지경이었다. 날마다 비가 왔고, 햇볕이 멸절한 날에도 기습적인 폭우가 내려 당황스러운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게 사나흘 동안 내린 비로 경안천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징검다리를 휩쓸 만큼 한껏 불어난 물이 출렁거리며 흘러갔다. 이제야 하천이 살아서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았다. 며칠 전 시들시들 말라가던 경안천의 모습은 깨끗이 지워지고 없었다.

경안천은 그간의 고단함을 잊고 출렁출렁 물결치며 흘러갔다. 청량한 물소리를 들으며 파란 달개비 꽃 소박하게 핀 하천 길을 걸었다. 팔팔대며 시원하게 흐르는 물소리 때문이었을까. 마음이 개운해 지고 잡념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복잡하던 마음이 말끔하게 행구어지고 온전한 나로 돌아온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보니 흐르는 물소리가 어쩐지 도심 속 소음과는 사뭇 다르게 들려왔다. 바쁘게 서두르던 구둣발 소리나, 제멋대로 울려대던 자동차 경적 소리하고는 확실히 달랐다. 뭐랄까. 거센 물살에 출렁거리며 흐르는 물소리가 내게는 경안천의 노랫소리처럼 들려왔던 것이다.

별다른 생각 없이 하천 길을 오갈 때는 미처 알지 못했었다. 왁자지껄한 시장 골목을 벗어나 한적한 하천 길에 접어들자, 굽이굽이 흐르는 물줄기가 살아있음을 알게 됐다. 잔잔한 물소리는 그가 부르는 삶의 노래로 생각되었다. 비록 도심 한 귀퉁이를 흘러가는 하천이었지만 그에게도 삶이 있고, 졸졸졸 흐르는 물은 그가 부르는 삶의 노래로 들려왔다.

굽이굽이 물결치며 흐르는 삶이 마냥 즐겁기만 하겠는가. 물길을 따라 하염없이 흘러가야만 하는 고달픈 삶을 제 몫으로 받아들인 까닭에, 자연 노래가 되어 흘러나왔을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너그럽게 받아들인 결과였다.

연보랏빛 쭉부쟁이 꽃이 활짝 핀 하천 길을 매일 같이 걸었는데 이제야 물소리가 노랫소리임을 알게 됐다. 그 동안 내게 주어진 삶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탓일까.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모양이다.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멋대로 틀어져 버린 삶을 원망만 했기에 더욱 그랬다.

삶이 주는 불편한 진실은 인생길이 그리 순탄하지 않다는 것이다. 힘든 고비가, 낭떠러지 같은 내리막길이 존재하는 사실을 삶은 말로 전해주지 않았다. 아주 작은 실수나 부주의함에서 비롯된 일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올 때 눈물로, 상처로 알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삼 년 전에 일이었다. 남편이 하던 사업이 점점 어려워져 갑자기 전셋집을 내놓아야 했다. 아직 이사 갈 곳도 마련하지 못했는데, 부동산에서 달갑지 않은 전화가 걸려왔다.

“사모님, 지금 집에 계세요?”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연락이 올 줄은 미처 몰랐었다.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온다는 연락을 받자 가슴이 쿵쥔거리기 시작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었다. 얼떨결에 들고 있던 물컵을 손에서 떨어트리기까지 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저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다.

비록 내 집은 아니었지만 전셋집이라도 날마다 쏙고 닦고 하면서 부지런을 떨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곧 내 집이라는 생각에 구석구석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어린 딸아이와 이 집에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로만 알았다.

전셋집에 살면서 이사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사를 가더라도 아이가 학교 들어갈 무렵에 집을 옮길 예정이었다. 그래서 거실 마룻바닥을 반들반들 정성들여 닦고, 창틀에 먼지가 쌓이는 것도 눈감아 주지 않았다. 앞으로 몇 년 간 딸아이를 키우며 살 집이었으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게 집을 내주어야 하난 상황에 처하고 보니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세입자가 집주인과 계약만 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기에 당장 나가서 살 집을 구해야 했다.

남편은 빚 독촉에 시달린 나머지 핸드폰을 아예 꺼버려 연락이 되지 않았다. 어린 딸아이와 앞으로 살 길이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빚을 갚고 나면 손에 쥔 돈이 얼마 되지 않았다. 적은 돈으로 집을 구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다.

며칠 뒤 새로 계약한 임차인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다.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하는 4층 빌라로 집을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날 예기치 않게 소나기가 내려 장롱이며, 침대며, 가재도구들이 빗물에 흠뻑 젖고 말았다. 그렇지 않아도 속상한데, 살림살이가 비를 맞아가며 이삿짐 차에 실리는 것을 보자 글썽글썽 눈물이 맺혔다.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가슴이 움푹움푹 패여 아파왔다.

처음부터 집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았더라면 이토록 아프진 않았을 텐데. 가정을 이루어 내 울타리를 갖는 것이 욕심이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기에, 집에 대한 집착도 버릴 수 없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초막이라도 내 집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했다. 그래서 전셋집이라도 내 집처럼 생각하고 한 곳에서 오래 머물고 싶었

다. 집은 내 아이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기에 더욱 그랬다.

하루아침에 살던 집에서 도망치 듯 이사한 새집은 비좁아서 살림살이를 펼쳐 놓을 수가 없었다. 필요한 가재도구들만 남겨 놓고, 작은방에 꾸역꾸역 밀어 넣었다. 예전과 달라진 상황에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혔다. 어쩌나 속이 상하던지 남편이 집에 들어 오기만 하면 분풀이를 해댔다. 밤새도록 으르렁거리며 물어뜯을 기세로 치열하게 싸웠다.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상처투성이가 될 줄 알면서도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심란한 밤을 보내고 나면 몸도, 마음도 맥이 풀려 손가락 하나 들 기운조차 없었다. 싸움이 계속될수록 오해와 불신은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지기만 했다. 생각을 가다듬고 마음을 추스를 그 무엇이 필요했다.

그런 계기로 경안천 산책을 즐기게 되었다. 하천 길을 따라 여러 날 걷다보니 온갖 사념이 저절로 사라졌다. 흐르는 물소리가 나를 위로해 주었던 것이다. 그렇게 경안천의 위로를 받으면서 생각도 차츰 정리가 되고 마음도 안정을 되찾아갔다. 마음이 평화로워지자 그제야 하천에 핀 들꽃 한 송, 돌멩이 하나에도 눈길이 가기 시작했다. 연보랏빛 쑥부쟁이 꽃이 생글생글 웃고, 점박이 표범나비가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는 듯 보였다. 자연의 숨결을 온몸으로 느끼자 불평과 불만도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는 삶에서 노래가 나오고, 노래하는 삶은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간혹 인생길을 걷다보면 뜻하지 않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다. 어쩌면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기를 여러 번 반복해야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대로 딱딱하게 굳어버릴 것 같은 아픔도,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 진다. 이미 지나간 아픔이고, 지나간 상처인 것이다. 그래서 기억 저편에 묻을 수 있는 것이리라.

경안천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삶이 흘러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저 잠시 머무를 뿐 그 어느 것도 한자리에 멈춰있지 않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큰 미련 없이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정갈히 비워,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다. 욕심이 사라진 평화로운 마음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제 스스로 삶을 노래할 줄 아는 경안천이 내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제 몫으로 주어진 삶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때, 삶은 진정 노래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